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7. 10.(목) 12:00  
(지 면) 2025. 7. 11.(금) 조간

## 이북5도위원회, ‘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’ 기념식 개최

- 7월 10일(목) ‘함께 열어나가는 통일시대’ 주제로 이북5도청사에서 개최

□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10일(목)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사에서 제2회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기념식을 개최했다.

○ 매년 7월 14일인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포용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일을 기념해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정했다.

□ 이날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청 입주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함께 열어나가는 통일시대’라는 주제로 ▲기념사, ▲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\* ▲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, ▲북한이탈주민 합창단 공연, ▲통일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.

\* 이북5도지사 표창 16점(황해 3, 평남 4, 평북 3, 함남 3, 함북 3),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표창 4점

○ ‘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’은 이북도민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거나,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공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전국 16개 이북5도 시·도사무소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. 표창장은 이북5도의 각 도지사가 수여했다.

○ ‘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’ 시간에는 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들려줬다.

- 이어서, 40여 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‘물망초 합창단’이 무대에 올라 ‘비목’ 등 3곡을 불렀다.
-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해 통일 염원 문구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함께 날리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.
- 한편,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기념식을 비롯해,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북한이탈주민-이북도민 간 가족결연, 기업체 연수, 남북이음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하고, 경제적 자립을 유도해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-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“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고,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초석”이라며, “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우리 모두의 성공이며, 더 나아가 통일된 미래를 향한 밝은 등대가 될 것이다”라고 전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<br>총무과 | 책임자 | 팀 장 | 권영철 (02-2287-251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김수진 (02-2287-2685) |

